

레바논 전역서 무선표출기 동시 폭발 “이스라엘 소행”

8명 사망 등 2750여명 사상...헤즈볼라 “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 위치추적 피하러 휴대전화 대신 사용...가자전쟁 이후 집중 도입

레바논 전역에서 17일(현지시간) 무선표출기 동시 폭발해 수천 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당국이 밝혔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통신장비를 이용해 공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피라사 아바이드 레바논 보건장관 대행은 이날 동시다발 폭발로 8명이 숨지고 약 2750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약 200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와 헤즈볼라 무장대원 등이 포함됐다.

보건당국은 대부분 피해자가 손을 다쳤고, 일부는 손과 복부에도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표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한 것은 이스라엘이 사전에 설치한 폭발물 때문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서방국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무선표출기 폭발사건의 배후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폭발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과 주요 서방국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등 서방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수입한 대만 기업의 무선표출기에 소량의 폭발물을 심었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폭발한 무선표출기는 헤즈볼라가 대만 골드아폴로에 주문해 납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AR924 기종으로 각 기기의 배터리 옆에 1~2온스(28~56g)의 폭발물이 들어가 있었으며 이를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 스위치도 함께 내장됐다.

이스라엘은 또한 무선표출기가 폭발 직전 수초간 신호음을 내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했다고 당국자 3명이 말했다.

이 때문에 다수 피해자가 무선표출기 화면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폭발에 따른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손이나 얼굴, 복부를 다쳤으며 손가락을 잃거나 두 눈을 심각하게 다친 이들도 있었다.

폭발 당시 영상을 본 보안 전문가들도 폭발의 강도와 속도가 단순한 기기 이상인 아닌 폭발물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17일(현지시간) 레바논 주변 헤즈볼라 요새 여러 곳에서 무선표출기 폭발이 발생한 가운데 아메리카 베이루트 대학 의료 센터에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테러 이후 가자전쟁이 발발하자 도청이나 위치 추적을 피하겠다고 목적으로 무선표출기 사용을 늘렸다.

특히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이 표적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쓰지 말고 폐기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헤즈볼라 대량으로 무선표출기를 주문하자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를 역이용해 공격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들은 헤즈볼라가 대만 골드아폴로에 무선

표출기 3000대 이상을 주문했으며 레바논 전역의 조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말했다. 일부는 이란과 시리아 등 동맹국에도 전달됐다.

이에 대만 골드아폴로 측은 폭발에 사용된 표출기는 자신들이 제조한 것이 아니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로이터와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골드아폴로 측은 이날 성명에서 폭발에 사용된 표출기가 자사 생산 제품이 아니고 골드아폴로와 상표권 계약을 맺은 유럽의 유통사가 생산,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아폴로 측은 “우리는 (유럽 회사에) 브랜드 상표 사용을 승인했을 뿐이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에 어떠한 관련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골드아폴로의 창립자인 쉬칭광 회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그 제품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상표만 붙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만 경제부도 대만에서 표출기가 레바논으로 직접 수출된 기록이 없으면서 제조사의 추가 조사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는 입장을 밝혔다.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번 표출기 폭발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비밀작전 수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는 암살 등 작전 수행을 위해 50여년 전부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 /연합뉴스

“한국계, 美에 중요”

바이든·해리스, 첫 백악관 추석행사 서면 축하...해리스, 한국계와 가족 ‘인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첫 추석 기념행사에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배포된 축사에서 “사상 첫 추석 백악관 리셉션에 모인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한다”며 “추석은 축하와 기념, 갱신과 성장, 약속과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가을 추수가 한창일 때 열리는 이 즐거운 명절은 전 세계 한국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축복에 감사하고 조상의 유산을 기린다”며 “추석은 한국 공동체의 풍부한 유산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보편적 유대감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라며 “가족이 이민을 온 지 몇 세대가 지났든, 여러분이 직접 이민을 왔든, 여러분 각자는 한국 공동체의 활기와 문화, 공헌을 우리나라 테피스트리(여러 색실로 그림을 짜 놓은 직물)에 엮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도 서면 축사에서 “추석은 가족의 중요성, 가을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조상의 넓은 어깨 위에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며 “한국계 미국인은 수백 년간의 미국의 구성(fabric)에서 중요한 부분(vital part)을 차지해왔다”고 했다.

또 “모두 알다시피 여러분이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 공동체의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 전통을 고양할 때 우리는 밝은 미래의 최전선에서 활기차고 문화적 풍요로움이 있는 길을 개척한다”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남편) 더그(앤드루)와 나는 당신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휴일을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흑인이자 아시아계 미국인인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과 가족이기도 하다. 그의 손아랫동생, 즉 앤드루의 동생 앤드루 앤드루의 부인은 한국계인 주디 리 박사다.

앤드루와 리 박사 사이에는 아들(재스퍼)과 딸(아덴)이 있는데, 이들은 지난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 날 무대에 올라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큰엄마’ 해리스 부통령을 응원하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 명절인 추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음력 설 축하 행사

를 열었으나 이 행사는 한국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음력 설을 쇠는 아시아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덴고 대통령 부부좌관, 필립 김 대통령 특별보좌관 등 백악관의 한국계 현직 및 전직 직원 등이 주도해서 마련됐다.

필립 김 특보는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으로 정부가 바뀐 뒤에도 이런 행사가 계속될 수 있는지는 질문에 “우리가 첫 행사를 함께 있어서 비전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백악관 사람들만이 아니다”며 “이런 일이 진행되길 바라는 커뮤니티 리더들과 파트너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 등을 묻는 말에는 “이것은 팀 차원의 노력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모든 공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 김 전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정책 고문은 2009년에 백악관에서 인도계 미국인들이 첫 디왈리 축제 행사를 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14년 뒤인) 지난해 가장 큰 디왈리 축제가 백악관에서 열렸는데 우리는 14년보다 더 빨리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암살시도 용의자 “김정은·푸틴 죽이겠다”

키이우서 발언 들은 미국인 간호사 ‘위험인물’ 판단 신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로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죽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봉사활동을 위해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미국인 간호사 헬시 월시의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월시에 따르면 키이우에서 처음 만난 라우스는 이후 각종 10차례가 넘는 각종 모임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도 언급했다.

월시는 라우스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2022년 6월 귀국 과정에서 워싱턴의 텔레스공황에서 자신을 신중한 세관경보보호국(CBP) 요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월시는 자신이 한 달 반 동안 키이우에 머물면서 알게 된 미국인 중 위험하다는 인상을 받

은 10여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던 라우스는 이 명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인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월시는 라우스를 ‘반사회적인 인물’로 따로 분류해 당국에 신고했다.

다만 이 같은 신고 이후에도 CBP 등 당국은 라우스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시는 지난해 라우스가 시리아 난민을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불러오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들은 뒤 다시 한번 당국에 신고했다.

연방수사국(FBI)과 인터폴에 온라인으로 라우스와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한 위험성을 신고했지만, 이번에도 FBI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월시의 주장이다.

한편 CBP와 FBI는 암살 시도 2년 전부터 라우스의 위험성을 당국에 전달했다는 월시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